



08호

뜨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10. 6. 15.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 발행인 : 박하식
·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 기획 : 지도교사 김시경, 부장 박새람
· 취재 및 편집 : 김선진 외 신문부 17명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 21-2
· 전화번호 : 031_361_0500
· 팩스번호 : 031_361_0599



스승의 날 행사

지난 5월 15일, 경기외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거행되었다. 학생회 학생들 주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선생님께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각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난 후 1,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들뜬 마음으로 체육관을 향했다.

본격적인 스승의 날 행사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카네이션 전달식이 이루어진 후, 경기외고 오케스트라 둘체와 밴드부 RH-의 합동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특히 박동우 선생님과 밴드부 보컬의 듀엣 공연은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뒤이어 학생대표의 감사편지 낭독과 그에 대한 박하식 교장 선생님의 답례 연설이 있었고, 학생회 학생들이

귀여운 합창과 율동으로 선생님들을 향한 학생들의 사랑을 표했다.

드디어 스승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앙케트 조사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다. 학생회장과 선도부장의 진행으로 행해진 이 순서는 1,2학년 학생 모두와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거친 것이어서 더욱 뜻깊은 순서였다. 앙케트 조사의 질문으로는 ‘가장 연애를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선생님은?’ , ‘기말고사도 어렵게 낼 것 같은 선생님은?’ , ‘가장 몸매 관리에 철저할 것 같은 선생님은?’ 등 모두의 호기심을 담은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학생과 동료 선생님들의 지목을 받은 선생님들은 무대에 나와 인터뷰와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 특히 본교의 교복을 입은 박하식 교장 선생님과 박종민 선생님의 모습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콘테스트가 있었다. 선생님의 특징적인 말투와 목소리를 따라하는 이 콘테스트에서는 임의로 호명된 학생들, 그리고 몇 분의 선생님들의 심사 아래 3개의 팀이 참가했다. 첫번째 참가팀인 두 명의 여학생은 유형숙 선생님, 강효식 선생님, 권소현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의 성대모사를, 두 남학생으로 구성된 두 번째 참가팀은 양희만 목사님과 강효식 선생님을 똑같이 따라해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웃음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에 즉석으로 참가한 남학생의 박준희 선생님 성대모사로 장내 분위기는 절정

에 다다랐다. 이렇게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 이 날의 행사는 학교 전체에 울려퍼지는 학생들의 ‘스승의 은혜’ 합창을 끝으로 막이 내렸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작년보다 더욱 참신하고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함께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선생님을 향한 학생들의 깊은 감사와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넓은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으로 우리 경기외고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채영 기자



경기외고 제 7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그 현장으로

2010년 2월 18일, 경기외고 제 7기 예비 신입생들은 처음으로 새 집이 될 경기외고 기숙사,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같은 방을 쓸 친구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숙사에서의 첫 밤은 2박 3일간의 미리내 수련원으로의 캠프, 경기외고 캠퍼스에서 4박 5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진정한 경기외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처음 만난 친구들과 꿈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경기도 미리내 수련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시설을 갖춘 곳이다. 이곳에서 7기 신입생들은 경기외고인으로서의 소양을 배웠다. 그리고 경기외고 기숙사에서 지낸 남은 시간 동안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다. 야간추적놀이, 오리엔티어링 등 단체 활동을 통해 기숙사 생활에서 중요한 협동심을 갖게 되었고 교가와 교훈, 교육 정신 등을 배워 입학 전부터 경기외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선생님과 선배들의 학습 방법 강의를 통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둘째 날, 아주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17일 제 3차 신입생 선발고사부터 기숙사

적응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함께했던 친구가 2,3학년 선배였던 것이다. 각 반에 한 명씩 학생회 선배들이 1학년 신입생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5반의 한 학생은 "저희 반에는 3학년 선배가 계셨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 할 때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편입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학년 선배였다니! 정말 지금도 놀라워요."라고 말했다.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선배인줄 모르고 친구처럼 대했다며 부끄러워했다. 1학년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독특한 추억을 공유하며 친해지게 되는 이벤트였다. 앞으로도 쭉 신입생들에게 이런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계속 되길 바란다.

신입생들의 기억에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역시 미리내 캠프에서의 마지막 밤 미리내 축제와 신입생들이 학교에 지내는 동안 열린 동아리 발표회였다. 신입생들의 숨겨진 끼를 보는 것은 물론 5, 6기 선배님들로 구성된 여러 동아리들의 멋진 실력도 감상할 수 있었다. 축제의 환호와 열기를 통해 경기외고가 학생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학

교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꿈과도 같던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입생들은 얼마 가지 않아 입학식을 맞이했다. 340여명의 신입생 및 선생님, 내빈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신 제7회 입학식은 각 학과를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갖춘 학생회의 선두 하에 학생들이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등 각국의 특징을 잘 표현한 의상과 함께 학생들이 입장하며 전교생의 이름이 화면에 띠워졌다. 신입생에게 자기 이름 하나하나가 경기외고의 자부심이 되리라는 다짐을 하는 순간이었다.

입장 후, 박하식 교장선생님과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봉암학원 강영중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사장님께서는 재치 넘치는 유머와 함께, Global Top 7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대표이신 만큼, 학생들의 경청 속에서 학생들의 마음에 큰 꿈을 심어 주시는 말씀을 남기셨다. 축사 후 장학금 수여식에서 참석하신 내빈 분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 동기를 부여하시기도 하셨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선발 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후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2월 23일에서 25일 열렸던 동아리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 세이렌의 'Nothing Better', 돌체의 반주와 함께한 선생님들의 '거위의 꿈'과 '야곱의 축복', 그리고 전통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신입생을 이끌어 준 학생회가 '널 사랑하겠어'를 특송으로 노래하는 등 여러 재학생 및 선생님들께서 7기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해 주셨다. 경기외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겸비된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입학식은 학교생활의 시작이자 학교에서의 3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이기도 하다. 7기 신입생들은 경기외고 입학식을 통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 순서로 교가가 울려 퍼짐과 함께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꿈을 되새겼다. 꿈을 향해 힘껏 날개를 펼칠 경기외고 7기 신입생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왕지민, 최선지 기자

경기외고 대표 공연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RH-, Steelo, Dolce 부장과의 만남

1. 밴드 동아리 RH-/ 부장 영기(기타)와 수영(보컬)이와의 인터뷰



Q1. RH-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영기: 고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악기 실력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수영: 밴드를 좋아해요. 밴드 음악을 좋아하고, 그 분위기도 좋아하고……. 일단 노래하는 게 좋아요^^*

Q2. 이것만은 RH-가 최고다?

■ 영기: 선후배 간, 멤버간의 화합! 모두가 서로 친해요. 회식 때도 훈훈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때 관중을 압도하는 건 Rh-가 최고죠ㅋㅋ.

수영: 영기 말처럼, 소수니까(16명) 서로 더 잘 알고 더 친한 것 같아요~

Q3. 앞으로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영기&수영: 6월 17일에 1차 목요 음악회가 있고 11월 Passion 2010 기간에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연습은 보통 공연 한 달 전부터 개인 연습을 시작하고 2주 전부터 모여서 합주 연습을 시작해요. 다 같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웃고 진짜 즐거워요!

Q4. 공연할 때 느낌이 어때요?

■ 영기&수영: 처음엔 떨리지만 공연하다보면 잊게 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Q5. 동아리를 홍보해 주세요.

■ 수영: 안녕하세요! 경기외고 밴드

동아리 RH-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신수영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공연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RH-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열정이 있는 경기외고 학생들이 모여 멋진 밴드음악을 즐겁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외고 밴드 RH-, 많이 사랑해주세요♡

2. 댄스 동아리 Steelo / 부장 연지와의 인터뷰



Q1. Steelo 부원들의 춤은 정말 대단한데, 춤을 따로 배운 학생들이 많은가요?

■ 따로 배운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냥 취미로 따라하다가 들어오게 된 사람이 더 많아요.

Q2. 공연할 때 느낌이 어때요?

■ 무대에 올라섰을 때에는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동작을 깜박해서 임기응변으로 슬쩍 넘어갈 때도 많고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적이 많습니다.

Q3. 우리 동아리는 이게 제일 좋다, 하는 점?

■ 선후배간에 같이 준비하는 무대가 대다수여서 준비를 함께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친목도 다질 수 있어요. 자습하느라 지치고 피곤한데 일주일에 하루, 아무 걱정 없이 노래 틀어놓고 노는(?)듯한 분위기여서 동아리 시간에는 통해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Q4. Steelo는?

■ 안녕하세요, 경기외고 댄스 동아

리 스타일로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춤추는 걸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1,2학년 학생들이 매주 모여 활동하고 있어요.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재능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연습하면 누구나 스타일로 멤버가 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스타일로는 춤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3. 오케스트라 Dolce / 악장 윤조와의 인터뷰



Q1. 돌체 부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바이올린이 20여명 정도로 가장 많고, 대략적으로 플롯 10명, 클라리넷 10명, 드럼 1명, 첼로 5명, 피아노가 3명 정도 있습니다. 1~3학년 통틀어 총 6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Q2. 돌체는 내부 및 외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이나 노인정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교외에서 주최한 큰 대회에 참가해 연주하곤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학교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봉사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Q3. 이럴 때 돌체 악장이라 행복하다?

■ 사실 악장이라고 해봤자 따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제 시간에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곡 선정이나 공연 구성에 의견을 조금 반영할 뿐이에요. 가끔 악보를 복사하고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공지를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단원들이 이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열심히 참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Q4. Dolce는요...

■ 오케스트라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주가 빛나는 이유도 우리가 모두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있기에, '함께'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벼거을 수 있는 3년 간의 고등학생 시절에 멜로디를 덧붙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스트라단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오케스트라는 개인의 실력보다 전체와 공감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가며 그 멜로디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돌체는 자신의 끼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보일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악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의 취미로만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자신의 음악을 나누고픈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더욱 용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오디션을 주관하면서 저는 전교에 돌체 단원들 말고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자신이 없거나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돌체에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나 1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무대와 그 준비과정 속에서 단원들과 느끼는 행복한 교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기자



넷째 주가 아닌 매 주 수요일만 되면 담임선생님은 어김없이 조사를 한다. ‘이번 주에 주말학교 신청할 학생?’ 잔류를 하면서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잔류 신청을 해버렸다. 점점 주말에 가까워 질수록 불안해져 간다. 마침내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커리어를 끌고 가는 친구들에게 ‘집 잘 갔다 와!’라고 배웅을 해줬다. 하지만 내 속은 타 들어간다. ‘아 그냥 집에 갈걸. 완전 피곤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은데. 최신 곡 다운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유난히 맛있는 토요일 점심을 먹는다. 귀가의 날 이여서 그런지 평소보다 빨리 밥을 받을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2시 30분까지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복으로 갈아 입은 뒤 편안하게 낮잠을 잔다. 어째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잠이 많아진 기분이다. 2시 25분에 사감선생님이 ‘2시 25분이다. 다들 교실로 들어가!’라는 말에 허겁지겁 교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꽤 많은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너는 이번에 왜 잔류 했어?’ ‘응 난 지방에 살아서.’ ‘난 할 숙제가 많아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오순도순 나누다 보면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하고도 전우애를 나눌 수 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지금 무한도전 할 시간인데. 이번 주 꽤 재밌을텐데. 집에서 하나티브이로 봐야겠다.’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부를 한다. 하지만 잔류 때에는 간식도 나오지 않아서 매우 허기지다. 이 때문에 내가 사둔건 ‘누네띠네.’ 여고생에게 두 입이면 증거 인멸! ‘사감선생님도 다른 반에 계신데 으흐흐.’라고 생각

하며 몰래 먹었다. 달달 함이 스트레스까지 풀어버릴 것 같다. 11시 30분이 되고 우리 기숙사에서 나 혼자 잔류를 했기에 아래층 친구 방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다.

아침 9시 20분, 평소보다 늦은 기상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샤워실에서 느긋한 목욕을 한다. 아침밥 보다 늦잠을 택하면 최대 10시까지 잘 수 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세븐일레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먹고는 반으로 향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급식실로 향하면 일주일 급식중에 가장 맛있다는 ‘일요일 점심’이 날 기다리고 있다. ‘즉화 삼겹살 구이, 부탄가스로 끓여먹는 부대찌개’ 등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급식 식단이 날 기다린다. 특히 반찬도 푸짐하게 담아주시는데다가 한산할 때 가서 급식 아주머니께 ‘동그랑땡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요?’라고 하면 조용히 식판에 얹어 주신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일요 예배’가 있는 날이다. 물론 종교를 믿는 학생들은 그린코너에 가겠지만 나는 그 시간에 검색대에 가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꿀과 같은 자유로운 시간이다. 5시 30분,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 드디어 기나긴 잔류를 끝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엄마께 전화를 드린다. ‘엄마 저 잔류 다 끝났어요. 숙제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너 정말 보고 싶더라.’ 훈훈한 전화를 마치고 돼지우리와 같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으면 하나 둘씩 친구들이 기숙사에 돌아온다.

주말학교 이야기

〈잔류를 하면 이게 좋다 BEST 10!〉

- 1 급식이 평소보다 맛있고, 양이 많다.
- 2 부모님의 동의 하에 외출을 할 수 있다.
- 3 아침 10시까지 늦잠을 잘 수 있다.
- 4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다.
- 5 다른 방 친구와 같이 잘 수 있다.
- 6 잔류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 7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다.
- 8 약간은 느슨한 자습 감독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9 여유롭게 샤워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 10 기숙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잔류를 하면 이게 안 좋다 BEST 10〉

- 1 집에 가지 못해서 가족이 보고 싶다.
- 2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 3 친구들이 세탁물 좀 찾아주라고 시킨다.
- 4 혼자 잔류하면 쓸쓸하다.
- 5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공부를 못한다.
- 6 바깥세상의 일을 잘 알지 못한다.
- 7 잔류 취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 8 주말에도 여전한 사감 선생님들의 감시 속에 잡혀서 산다.
- 9 다른 아이들처럼 맛있는 걸 외부에서 사먹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
- 10 수행평가를 할 때 컴퓨터를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

유예슬 기자

신종 플루의 여파로 미루어졌던 PASSION 2009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맛집 추천!

1. 한세 분식 (★★★★☆)



가장 먼저, 경기 외고인이라면 한 번쯤은 가 봤거나,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들어 봤을 한세 분식을 소개하겠다. 이곳은 토요일 일정이 끝나거나 잔류를 하는 가플리안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다. 맛도 좋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제격! 게다가 주인 아줌마도 친절하시다. 분식집의 본분을 지키며 떡볶이와 순대를 열심히 팔고 있다.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역시 떡볶이와 순대, 어묵 등의 분식류이다. 추천하고 싶지 않은 메뉴는 의외로 김밥이다. 다른 메뉴들에 비해서 준비 시간도 길고 맛도 조금 짠 듯하다.

(찾아가는 길 : 정문을 나와서 당정중학교 반대쪽 골목길로 가다 보면 타이어 가게가 보이는데 그 길로 쭉 가

다보면 상가들이 나온다. 그곳에 딱 있는 것이 한세분식! 모르겠다면 주변에 아딸을 찾아보자)

2. 용가마 순대 (★★★★★)



용가마 순대는 가플리안들이 가기 위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순댓국이라는 메뉴는 우리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일단 한번 먹어보면 그 맛과 양과 인심에 반하게 될 것이다. 토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가진 가플리안이라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할 곳!

(찾아가는 길 : 한세 분식이 있는 거리를 쭉 가다가 블록의 마지막 건물에 있다. 왼쪽으로 돌면 바로 보이니까 찾기 쉬울듯!)

3. 할매 냉면 (★★★★★)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다. 50년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그 맛은 공식 인증 되었다. SBS에 출현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단,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약간 주의해야 할 듯. 맵다는 소문이 있다.

(찾아가는 길 : 용가마 순대 바로 옆)

4. Brown sauce & Coffee Hola (★★★★☆)



김선진 기자

멋진 신여성& 쿨가이가 되고 싶다면 이곳으로! 분위기 있는 카페다. 이 곳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음식은 수제 돈가스와 치즈케이크! 맛이 일품이다. 단점은 우리같은 학생들이 가기에는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하지만 맛을 보면 충분히 값이 커버가 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간식과 식사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찾아가는 길 : 할매 냉면 바로 옆.)

공부에 지치고 사는 데 지친 우리들에게 친구와 함께 나가서 먹는 별미 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종 플루의 여파로 미루어졌던 PASSION 2009가 3일동안 동아리 발표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계획되었던 반까페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지만 많은 동아리들의 열정적인 공연과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찬 passion 2009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날에는 피아노 동아리 피아노 바이러스, 연극동아리 나빌레라, 그리고 노래 동아리 세이렌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공연은 피아노 바이러스의 피아노 공연. 여기가 외고인지 예고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피아노의 선율이 매우 인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꼼꼼하게 준비된 세트,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연극동아리 나빌레라의 공연! 깜녀의 화끈한 연기

와 남주인공의 감미로운 세레나데가 공연의 인기에 한 몫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어진 공연은 노래 동아리 세이렌의 무대였습니다. 5기 선배들의 카리스마 있는 무대로 시작한 공연은 가수라 해도 손색 없을 만한 완벽한 무대들로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공존했던 화려한 무대! 마지막 곡인 Nothing better은 많은 학생들의 환호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춤 동아리 스텔로와 힙합동아리 디타후, 그리고 밴드 RH-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작년 목요 음악회 때부터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얻었던 동아리들의 공연이어서 그런지 더욱 더 인기가 많았던 두 번째 날의 공연의 시작은 스텔로가 맡았습니다. 섹시댄스부터 팝핀댄스, 그리고 히트송들을 연달아 소화해내

는 덕분에 체육관은 열기로 가득찼었는데요. 스텔로 멤버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함께 해 더욱 더 멋진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공연은 디타후의 힙합 공연이었는데요. 열정적인 랩과 보컬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합쳐져 환상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관중들과 함께했던 공연, 그리고 모두 함께 미쳐버렸던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경기외고 밴드부 RH-의 무대였습니다. 빵빵했던 음향과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녹슬지 않은 악기 연주가 어우러져 더욱 흥분되었던 RH-의 공연은 보컬의 팬클럽을 남기며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학교 공식 오케스트라 돌체와 뮤지컬 동아리 뮤직홀릭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행사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돌체의

환상적인 하모니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숨겨져 있던 실력을 뽐내는 독주 무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돌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공연 역시 학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다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다음 공연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뮤지컬 공연을 하는 뮤직홀릭의 무대였습니다. 스토리와 노래가 합쳐져 더욱 멋있었던 뮤직홀릭의 공연도 많은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짧은 시간동안 동아리 발표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의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공연에 참여한 학생이나 공연을 관람한 학생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멋진 축제였습니다.

이희원 기자

언론의 중심! 진실의 중심!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한명숙 전 총리와 검찰의 마찰,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노조 파업, 천안함 사건의 진실 공방 등 최근에 들어 사회 이슈가 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진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들을 보며 기자, PD 등을 꿈꾸는 학생들은 꿈을 향한 더욱 더 강한 의지를 불태웠을 것이다. 이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발판이 될 신문방송학과를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속해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1972년 정법대학에서 창설된 후, 1980년 12월 정법대학이 법과대학으로 독립함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단 시일 내에 최다 졸업생을 언론계에 배출할 만큼 발전된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궁금해하는 학생이 많다. 신문방송학과의 교

육목표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론과 언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자질 등이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상징적 환경이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신문방송학과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 비판의식을 가르치고 봉사정신을 가진 사회의 지도자,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여러 교육을 실시한다.

신문방송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영역은 신문, 출판·잡지, 방송, 영상매체, 광고·홍보, 뉴미디어·정보통신, 사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등이다.

신문방송학과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자유로운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 지금은 광고 동아리 YAC (Yonsei Advertising Communication), 사진 동아리

PCC (Photo Communication Club), 영화 동아리 Kino, 영상 동아리 CUE (Close Up Essential) 등이 있고, 학생회 Comm. 知樂 (꼼지락)이 운영되고 있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은 알찬 강의와 자치활동을 통해 대학교에 다닐 동안 충분한 자질을 키운 뒤 졸업한다. 졸업 후에는 신문·방송사와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아나운서·PD 등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거나, 광고회사에 입사하거나, 일반기업체의 홍보실에서 일하게 된다. 또,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기도 한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에 진실을 전달해 줄 용감한 우체부 “언론인”과 짧은 글·그림·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킬 함축의 마법사 “광고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 도전해보자!

신현주 기자



대학 학과 소개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뭘 까?”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가장 나와 맞을까?”

GAFLian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에게 던져보았을 질문이다. 물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GAFLian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질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답을 찾기 힘든 사람들, 가고 싶은 학과가 있지만 정말 그 학과가 나에게 알맞은 학과인지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전공을 찾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학과가 바로 자유전공학부이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실천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된 신설

학부이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1학년 때 문? 이과 기초과목을 포함해 다양한 학문을 배운 후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이때, 사범대, 의과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전공 2가지를 합쳐 ‘융합 전공’을 전공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진로를 찾은 후,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이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교수와 개별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교수와 개별상담을 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학부의 선배가 멘토

세족식, 그 따뜻한 현장으로

지난 4월,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세족식 행사가 열렸다. 세족식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던 의식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세가 돋보이는 의식이다.

경기외고의 선생님들께서도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자 세족식에 참여하셨다. 각 반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에 다목적실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들과 목사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찬송가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직접 담아왔고,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두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생활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정하게 물어봐주셨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기외고만의 특별한 행사에, 학생들은 많이

낯설어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고민과 꿈을 들어주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경기외고에서 알차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진심을 담은 선생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포옹을 끝으로, 세족식은 마무리되었다.

세족식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돈독하게 해주었고, 적응 하느라 지치고 힘든 학생들이 굳은 의지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비록 세족식은 이미 마음 한 구석의 추억으로 남았지만, 다목적실에서 경기외고인들이 가슴 깊이 느꼈던 사랑은,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데 언제까지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김민지 기자



지난 4월 5일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의 큰 자랑거리인 세족식이 거행되었다.

세족식은 가톨릭교에서 행하는 의식 중의 하나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성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의 사랑과 봉사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에 걸 맞는 뜻 깊은 행사인 것이다.

각 반 학생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목적실로 갔고, 목사님의 잔잔한 기타소리와 담임선생님의 진실한 기도와 함께 세족식이 시작되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촛불들이 다목적실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모두 한마음

이 되어 찬송가를 불렀다. 학생들은 차례대로 밖으로 나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고, 선생님들 앞에 앉았다. 선생님들은 정성스레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봐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다. 선생님들께서는 발을 다 씻어주신 뒤 수건으로 물기를 직접 닦아주시고 뜨거운 포옹도 잊지 않았셨다.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고민과 상처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다. 한 1학년 학생은 “세족식에 대해 특별한 생각 없이 참여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짧은 시간이라 아쉬웠지만, 선생님들의 격려로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세족식에 참여한 한 선생님께서는 “매년 있는 행사이지만 늘 새롭다.”며 “학생들이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고, 오늘 씻어낸 깨끗한 발로 좋은 길을 걸어가는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최혜연 기자

가 되어 실제로 겪은 학사 과정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커리큘럼 뿐 아니라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어 자신에게 꼭 맞는 전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1학년 때에는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2학년 때 전공할 과목에 대한 준비도 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이 과에 속한 학과를 전공 또는 부전공하고 싶다면, 과학, 미적분 강의 등을 들으며 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영어와 다른 외국어를 익히도록 지도하는 외국어수업,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교과목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기르는 주제 탐구세미나 등을 하며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외국어, 다양한 시각, 논리력 등

을 기른다.

그리고 강의 외에도 명사초청강연, 국내 현장학습, 해외대학탐방 등 다채로운 학부 활동이 있다. 2009년 여름에는 해외대학탐방 활동으로 41명이 선발되어 미국, 영국, 중국, 포르투갈,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에서 계절 학기를 수강했다고 한다.

신생학부이기에 선배가 없는 것이 험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년에 입학한 1기들은 “선배가 없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학교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동기들 사이에 단합이 잘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자유전공학부는 학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영문 출판물 『Panthalassa』를 자발적으로 제작할 정도로 학부 사랑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는 GAFLian이 가장 꿈꾸는 대학교이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며 자신의 꿈과 학부를 정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대학교의 신설학부, 서울대학교를 향한 꿈에 이 학부를 더해보면 어떨까?

최연재 기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학년도 체육대회,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5월 20일 목요일, 2010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경기외고의 체육대회가 열렸다. 경기외고 1, 2학년 학생들이 흘린 땀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 이번 행사에는 경기외고의 여러 선생님들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학년 별, 과 별 퍼레이드였다. 2학년 영일과의 퍼레이드가 시작될 무렵 갑작스런 방송기기의 문제로 퍼레이드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 2학년 영중과와 영일과의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퍼레이드는 점심시간이 끝난 후 계속되었다. 모든 팀이 멋진 퍼레이드로 많은 박수와 함성을 받았으며, 다른 과의 퍼레이드가 진행될 때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 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 진행 중에도 학생들은 열띤 응원과 스포츠 정신으로 성숙한 면모를 보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자기 자리나 운동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진정한 가플리언(Gaflian)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1학년 최종 우승은 오랜 중국어과의 전통을 깨고 일본어과에게 돌아갔으며, 항상 우승을 해왔던 중국어과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2학년 최종 우승은 예년과 다름없이 중국어과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일본어과에게 돌아갔다. 연일 흐렸던 날씨가 지나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졌던 경기외고의 2010년 체육대회는, 1학년에게는 열정을, 2학년에게는 고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라는 아쉬움을 안겨주며 무사히 막을 내렸다.

〈경기결과〉

- | | |
|----------------------|------------|
| 1학년) 축구: 중국어과 | 농구: 일본어과 |
| 피구: 일본어과 | 발야구: 영일과 |
| 왕닭싸움: 일본어과 | 줄다리기: 일본어과 |
| 우승: 일본어과 / 준우승: 중국어과 | |
| 2학년) 축구: 영중과 | 농구: 중국어과 |
| 피구: 중국어과 | 발야구: 영일과 |
| 왕닭싸움: 일본어과 | 줄다리기: 일본어과 |
| 우승: 중국어과 / 준우승: 일본어과 | |

계주: 중국어과



2010 체육대회

지난 5월 20일 화창한 날씨 속에 경기외고 제 7회 체육 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여학생 수의 증가로 공굴리기 종목이 사라지고 밭야구 종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일주일간의 피구, 농구, 축구 그리고 밭야구의 예선을 거치며 이미 분위기는 달아오를 대로 달아 올라 있었다. 학생들의 협동심이 이루어낸 입장 퍼레이드는 다양한 음악 선곡과 소품 활용 등 화려하고 특색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지만, 음향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오후에 재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진행된 운동 경기들의 결승전에서는 열띤 응원전과 함께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펼쳐졌다. 대부분의 경기들이 큰 충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매너 있는 선수들의 모습은 큰 박수를 받았다. 들뜬 와중에서도 학생들은 틈틈이 운동장을 청소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1학년 일본어과가 우승을 하여 중국어과의 연승 기록을 깨뜨렸지만, 중국어과는 2학년 우승을 차지하며 아직 건재함을 보여 주었다. 큰 사고나 과 간의 충돌 없이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된 체육대회는 전교생이 교가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체육대회로 1학년은 아직 서먹했던 사이를 더욱 더 가깝게 만든 계기를 가졌고 2학년은 작년 체육대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더 열정적이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때의 열정은 계속 이어져 나가 GAFLIAN의 꿈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지현 기자

5월 29일 토요일에는 'Career Day'를 맞이해 학부모님과 선배님들의 강의가 있었다. 1교시에는 각 반의 학부모님 중 한 분이, 2교시와 3교시에는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꿈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중 2학년 4반에서 멋진 강의를 해주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Q&A 형식으로 바꾸어 정리해 보았다.

Q. 교수님이 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알고 싶어요.

A.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직업으로는 약사가 최고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약대에 지원해 약학을 공부했는데 사실 제가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졸업 후에 약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을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집에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그 때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법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히 지적 호기심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변리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변리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 약학과 법학을 같이 공부한 저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고, 약 10년간을 변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우리나라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충북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를 맡아 교수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Q. 가정을 돌보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A. 사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친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봐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는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다면 '좀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요즘은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점점 좋아지겠지요. 우수한 여성 인력이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면 결국 그건 사회의 손해니까요. 여학생들 중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직

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충분히 병행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시거나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A.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꼽으라면 정말 많겠지만, 한 가지만 들자면 대체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낙천적이라는 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낙천적이기 만 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낙천성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Q.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일단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겠지요. 하지만 내신 관리를 하고,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세요. 부모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을 부모님이 추천해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의견이 엇갈린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또한 인생의 역할모델을 정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가장 좋은 역할모델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즐기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많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현재 여기서의 생활과 공부, 경험을 최대한 즐기세요. 제가 좋아하는 <논어>의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구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프로필인데 참고로 첨부했어요.

직급 : 조교수

전공 : 특허법실무

관심 분야 : 특허법, 지적재산권

담당 과목 : 발명특허법, 디자인상표법, 특허소송실무

연구실 : 64동 104호(261-3595)

이메일 : kwdshe@daum.net

1. 학력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약학사)

* 고려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 경력 및 주요활동

*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 아시아변리 사회 한국협회 국제이사 역임

*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지도센터장

* 현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위원

* 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

* 현 충청북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Career Day

5월 29일, 경기외고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진로나, 대학, 학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선배님들이 학교를 찾아오신 것이다. 사전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와 호응도는 매우 좋았다.

그 중에서 문과의 탑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법대 4년에 재학 중이신 1기 선배를 만났다.

우선 아이들은 '서울대 법대'라는 타이틀에 기죽은 듯 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는 자신도 이 자리까지 올 줄은 몰랐다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Q. 서울대 특기자 전형으로 수시에 합격하셨다는 데 그러면 내신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저는 한 1.7등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Q. 내신 1.7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닌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A. 1학년 초반에는 잘하려는 욕심이 앞서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집중도 잘 안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다고 하는 만족감 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하지요^^ 저는 수업 끝나고 한 5분정도 복습하고 그 다음 자습시간에 1 time 전체를 통째로 다시 복습하는 데 쓸았어요.

Q. 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A. 저는 방학 때 잔류를 해서 규칙적

인 생활을 했어요. 주말에는 나가서 학원을 다니고..... 제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썼던 다이어리를 보니까 매일 6시 30분에 기상해서 밥을 먹고, 학교 일과표대로 생활했어요. 아침 시간에는 언어공부를 했고요, 점심에서 저녁 시간, 그리고 밤에까지 수학공부를 했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11시 이후부터는 사탐 공부를 했어요. 1기 때는 선택야간자를 학습으로 1시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때까지 공부했죠.

Q. 법대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다면?

A. 우선 법 조항을 배우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판례를 배워요. 법대의 좋은 점은 리포트가 많지 않다는 것! 하지만 모두 시험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Q. 로스쿨은 어떤 학과가 유리할까요?

A.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알아봐왔는데요, 우선 현재로서는 법학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경영학과예요. 이공계 쪽에서도 법학과에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Q.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데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대학을 들어가면 정말 고등학생 때 힘들었던 거 보상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 열심히 해서 대학생 때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선배와의 만남이 끝나자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자리에 서겠다면서 의욕을 보였다. 이상 경기외고의 멋진 1기 선배와의 특별한 만남이었다.

박새람 기자

경기외고 1기 출신, 풋풋한 한보라 교생 선생님을 인터뷰하다!



학생들에게 중국어 독해를 가르치시는 한보라 교생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한보라 교생 선생님은 한국 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경기외고 1기 졸업생(중국어 특기자)이신데요, 진솔한 이야기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재밌는 학교생활 이야기 등을 들어 보았습니다.

1. 사회에 나갔을 때 경기외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해주세요.

- 명문 고등학교니까, 사람들이 경기외고 졸업이라고 하면 다 감탄하죠. 물론 명지외고, 경기외고 라고 두 번이나 말해야 되지만…….

2. 경기외고에서 재밌거나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 알려주세요.

- 역시 기숙사의 묘미는 다 같이 즐기는 생일파티죠. 친하든 안 친하든, 꼭 룸메이트들이 생일파티를 해줬어요. 그땐 꼭 티 나게 불을 다 꺼놔요. 갔을 때 아직 부스럭대면 ‘아, 준비가 안됐구나.’ 하고 그날엔 샤워도 두 번 넘게 하다가 친구들이 빨리 나오라고 하면 모른 척하고 가죠. 정말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은 작더라도 과자 하나씩은 모두 사줬어요. 그날 생일인 사람은 책상에 선물이 쌓이곤 했죠. 그럼 생일인 아이는 그 날 많이 행복하죠. 급식을 먹을 때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 모르는 학생들도 다 노래를 함께 불러줬어요.

3. 1기 땐 무단 외출을 어떻게 했나요?

- 그때는 지금처럼 경비가 심하지 않았어요. 지금과 달리 후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서 “갈까? 가자!” 하고 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습시간을 빼고 근처 역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들어오다가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지요. 그래도 재밌었답니다. 지금은 철통경비지요? 따라하면 안됩니다!

4.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때도 특이했나요? 선생님 중국어 발음도 참 신기해요.

- 제가 중국어 발음할 때 많은 친구들이 웃는데, 이렇게 해야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특이했어요.

5. 1기의 잔류 생활을 알려주세요.

- 잔류가 재미있었죠. 그때는 한마디로 “노터치”였어요. 무단잔류해서 열쇠로 친구 옷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 숨어있기도 했고, 노트북을 가지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죄다 개인 비밀번호로 되어 있고, 다 안 되는 거네요. 따라하지 마세요.

6. 많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데요, 학창시절 때 살이 찼었나요? 만약 살이 찼었다면 살 빼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살이 찼었죠. 1학년 때에는 매우 마른 편이었는데 8,9 kg 찼었어요. 수능 보러갈 때 집에 맞는 옷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옷 한 벌을 사야만 했죠. 수능 전까지는 다

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일로 충격을 받았어요.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죠. 이건 상담 오는 학생한테만 가르쳐 줬던 건

데, 저는 일명 잠 다이어트를 했어요. 한끼를 배부르게 먹고 자요. 깨울 때 배고프면 자요. 그리고 계속 자는 거죠. 전 12시간씩 잤어요. 그래서 5kg 정도 빼졌어요.

7. 캠퍼스 커플, CC는 1기 때 어땠나요? 선생님 주변 CC들은 오래가던가요?

- 그 때도 운동장에 CC 가 있었죠. 몇몇 커플은 오래가면 대학교 1학년 정도까지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오래 사귀기 힘드니까요.

8. 그 때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수건 적재를 했나요?

- 아니요. 그 팬 학생들이 개인 수건을 갖고 와서 세탁실에 돈을 맡기고 세탁을 했죠.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편해진 거죠. 지금 수건을 삼천장 정도나 돌리고 있다는데 학생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적재를 안 했으면 해요.

9. 슬럼프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 전 중국어 특기자로 들어와서 대회에서 떨어지거나 수상을 못하면 엄청 우울했어요. 그 때는 상담하거나 믿고 의지할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 가서 이유 없이 평평 울곤 했죠. 또, 항상 노력하게 만드는 역할모델을 정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했어요.

10. 정식교사가 되면 경기외고에서 가르칠 마음이 있나요?

- 교생실습은 대학교에 있는 과정 중 하나이고 실습을 마친 뒤에 자격

증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어, 경영학, 교육학 세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생실습을 하기 전에는 선생님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달 있다 보니까 모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좋더라고요.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모교인 경기외고에서 일하고 싶어요.

11. 학교와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 마디 해주세요.

- 모든 학생들은 외고에 들어와서 친구와 성적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모두 터를 안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정말 다 그리워요. 어떤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서 자신이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나 계산하고 있는데 전 그것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잘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꼭 꿈을 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노력해서 직업의 선택권을 넓히면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꼭 한 가지 직업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꿈을 생각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긴 인터뷰에도 재밌게 답변을 해주신 한보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29일 토요일에 본교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다시 만나길 바라며 그리워할 거예요!!

김혜주 기자



이번에 우리 학교에 새로 오셔서 2학년 경제와 3학년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계시는 박인배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2학년 8반 담임선생님이시죠? 2학년 8반 교실에 맨 처음 들어오셨을 때 쑥스러우면서도 설레는 얼굴을 하신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2학년 8반의 한 아이가 선생님을 보고 "임시(담임선생님)야?"라고 말하자 "누구야?"라고 말하시며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선생님에게 경기외고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A. 원래 전에 있던 학교도 기숙사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출발선에 선 그 긴장감과 설렘? 그런 걸 느꼈어요. '학교가 참 예쁘고 깨끗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Q. 맨 처음 교실에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 키에 아이들이 압도당했는데요, 선생님 키가 얼마나 크신 거예요?

A. 180.3cm! 요즘 흔히 말하는 위너(winner)죠. 하하하. 키가 180cm가 넘지만 칼슘이 다 빠져 나간 듯한 몸매예요. 별로 체격이 크거나 하진 않아요.

Q. 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데, 그럼 선생님의 매력 역시 키?

A. 음, 큰 키와 호감형 얼굴? 하하하.

Q.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결혼 계획은?

A. 최대한 빨리 해야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여자입니다.

Q. 왜 여자인데 안타까운 거죠?

A. 여학생들이 아쉬워해서요.

Q. 하하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A.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학생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학생들을 지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Q. 아이들이 얼마 전에 선생님 생신을 맞이해서 파티를 했고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파티를 했잖아요. 교탁에 서서 정말 좋아하시면서도 부끄러워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어떠셨나요?

A. 너무나 감동했고 교사가 된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고마웠어요.

Q.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A. 슬램덩크와 철학콘서트. 슬램덩크는 농구에 대한 열정을 높여줬어요. (8반 남자아이들에게 알아본 결과 선생님의 농구실력은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 콘서트는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해요.

Q. 그래서 가끔씩 수업시간이나, 조회, 종례 시간에 명언을 인용하시는군요.

A. 네. 학생들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해서요.

Q. 사회문화랑 경제 두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과목이 더 매력 있나요?

박인배 선생님 INTERVIEW

A. 음, 둘 다 매력 있는 학문이지만 사회문화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회문화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Q. 사회교과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A. 첫 번째로, 사회라는 교과는 의미 해석을 중요시 여기는 교과이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중요한데요, 언어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많이 읽고 신문을 많이 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통찰력과 분석력을 기른다면 사회 교과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로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것인데요. 즉,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가플리언들도 가장 먼저가 인성이고 그 다음이 공부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조금은 유쾌한 답변을 부탁한다는 기자의 요청에 난감해 하시면서도 유머러스한 답변을 해주시려 노력해 주신 박인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박새람 기자

체육대회의 過熱

체육대회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공부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각 학과의 단결, 나아가 경기외고인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축제와 더불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큰 행사이니 만큼 학생들의 체육대회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다. 자율선택활동 시간을 비롯하여, 점심시간, 저녁시간, 간식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열심히 체육대회 연습을 하는 경기외고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체육대회가 지나치게 과열된 감이 없지 않다. 잘하려는 마음과 열의는 물론 아름답지만 지나칠 경우는 문제가 된다. 실제로 경기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경기 도중 심판의 경기 운영에 대항을 하고 상대 선수에게 상처가 될 심한 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응원하는 학생들 역시 상대 선수들에게는 물론 심판의 판정에 야유를 퍼붓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응원구호를 사용하는 학과가 존재했다.

경기외고인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인 체육대회가 남긴 결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열정과 패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엔 익명성에 숨어 남을 비난하고, 정해진 규칙을 통째로 흔드는 비민주적인 모습 역시 있었다. 모든 일에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 역시 따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역기능의 폐해가 순기능의 긍정적인 면보다 크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체육대회의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인 점을 기억하고 다음 체육대회에서는 학과만의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동(大同)의 가플리언을 기대해본다.

박새람 기자

서윤미 선생님 INTERVIEW

출산휴가로 잠시 우리 학교를 떠나 계셨다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서윤미 수학선생님을 만나보았다.

Q. 출산 휴가 후 오랜만에 학교에 오신 기분 어떠세요??

A. 정말 반갑고 좋아.^^

Q. 수학의 매력...?

A. 개인적으로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깊고 넘어가고, 명확한 이유로서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보통 잘하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게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해서 수학을 하다 보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깊고 넘어가고, 명확한 이유로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수학의 특성이 내 성격과 맞아서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

Q. 원래부터 꿈이 교사이셨어요?

A.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정말 좋아해서 그 때부터 계속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Q. 선생님 학창시절의 수학공부법은 무엇이었나요?

A.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었고, 일단 수학을 좋아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었어. 그리고, 고등수학 상? 하, 수I, 수II 모두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었어. 이 노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숙제로 하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수I, 수II까지 만들게 되었어. 이렇게 만든 3권의 노트를 반복해서 봤고, 과학탐구영역까지도 수학처럼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수능 때까지 반복해서 봤지. 나한테 내 스스로 정리한 이 노트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

Q. 수학선생님으로서의 첫해 어떠셨어요?

A.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학교가 여기였어. 중 1때부터 워낙 하고 싶은 일이어서 정말 열정이 넘쳤어. 보충수업도 아닌데 밤 늦게까지 남아서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고 가르쳐주고 했어. ‘나처럼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보다 더 경험 있고 좋은 선생님께 배우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학생들한테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Q.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A. 특별히 더 바라는 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금처럼만 잘 따라와줬으면 해^^

Q. 규민(선생님 아들)이 자랑해주세요.

A. 이제 10개월 돼서 아직 자랑할 거리는 없는데..... 뜻은 모르지만 이제 ‘엄마’, ‘아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너무 귀엽고 예뻐서 녹음도 해놨어.

Q. 선생님을 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내용을 하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A. 물론, 반복되는 내용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게 재밌지. 그런데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수학을 소개하는 거라서 항상 다른 느낌이고, 전혀 지겹지 않아. 할 때마다 재밌고 좋아. 특히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때,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안 좋은 표정으로 질문을 하거나 수업을 듣기 시작하다가, 내 설명을 듣고 표정이 딱 밟아지는(?) 그 때, 그때 정말 보람차고, 즐겁고 재밌어.^^



Q. 6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3학년이 딱 됐을 때, 사탐이 덜 되 있는 거랑, 수학이 덜 되 있는 거랑 부담의 정도가 다르겠지? 수학은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만, 3학년이 되기 전에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도 마음먹기를 달리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해. 3학년 때는 다른 할 게 많아서 시간을 많이 투자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해보고! 모르는 거는 완벽하게 깊고 넘어가야 돼. 이 때 풀이 과정을 외우면 3학년 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외우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정말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윤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지원 기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수건은 어디에?

경기외고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까? 아마도 침구류, 세면도구 등의 생필품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수건’에 관해서는 모든 경기외고 학생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봤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수건 적재’! 수건 없이는 씻을 수 없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수건이 없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3장씩만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거늘, 우리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수건을 적재하는 것 일까? 수건을 적재하는 학생의 심리는 간단하다. ‘나중에 없을 때 쓰려고, 대비용으로’ 적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지 못한 선택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마음가짐과 세계인의 자세를 가진 우리들은 금방 알 수 있다. 사람이란 의외로 단순한 생물이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른 이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수건을 적재한다면 수건 부족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건 적재의 문제가 당장 바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의식을 바꾸고 수건 적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노력한다면 한 걸음씩 수건 적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요즈음 수건의 공급량을 늘렸더니 어느 정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듯하다.) 수건 따위에 연연하는 소위 쿨하지 못한 경기외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점잖은 자세로 수건을 3장씩 집어가는 아름다운 경기외고인이 될 것인가는 학교 선생님도, 사감 선생님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수건 적재 문제를 해결해서 아름다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자.

社說

김선진 기자

GAFL의 선생님들을 파헤쳐보자!

많은 학생들이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수한 교사진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 외고 학생들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하였다. 지면 관계상 모든 선생님들을 소개할 수 없기에 일부만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 소개되지 않은 선생님은 다음 호를 기대하셔도 좋겠다. 그럼 이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강효식 선생님 – 담당과목은 사회이나, 국사 수업으로 더 유명하신 선생님이다. 눈을 감았다 뜨면 20페이지가 나가있다는 전설의 폭풍진도와 수업 중간 중간 던지시는 개그는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명은 아몰레드이다.

고정일 선생님 – 담당과목은 정보와 컴퓨터이다. 유행어로는 ‘우와 신기하다’가 있다. 별명은 단연 ‘엑셀’이며, 김태희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예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권소현 선생님 – 담당과목은 영어이다. 영어권의 문화를 가르쳐주심과 동시에 GAFL 내의 오바마 지지율을 대폭 하락시킨 선생님.

김성은 선생님 – 담당과목은 중국어이다. 교내 설문조사 결과 춤을 잘 출 것 같은 선생님에 랭크되어 지난 5월 15일 그 춤실력을 살짝 공개하신 바 있다.

김의재 선생님 – 담당과목은 체육이다. 올해 초 결혼에 골인하셨으며, 그 이후 더욱 세련되진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 관련된 소문에 전 테니스 국가대표라는 소문이 있다.

김철환 선생님 – 담당과목은 중국어이다. 수업시간에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 쓰시는데, 나름대로 안경을 내려쓰시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문혜경 선생님 – 담당과목은 중국어이다.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 같은 발음으로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 바 있다.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선생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이 선생님의 성대모사가 가능하다.

박동우 선생님 – 담당과목은 수학이다. 교내 설문조사 결과 다음 시험문제가 어려울 것 같은 선생님에 랭크 되셨다. 선생님 자신이 항상 22살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깜빡 잠이 든 학생들을 위해 ‘두더지’라는 특별한 대처법을 소유하고 계신다.

박준희 선생님 – 담당과목은 과학이다. 유행어는 ‘원자가 해피해집니다’ 등이 있다. 독특한 목소리와 특유의 시크함으로 유쾌한 수업분위기를 이끌어 가신다. 최근 득남하신 것으로 전해지며, 그래서인지 최근 매우 즐거워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박진 선생님 – 담당과목은 사회이다. 목이 자주 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선생님의 목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전하신 바 있다. 실제로 목이 약하기 때문인지 ‘뻑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다. 웬만한 음 이탈(일명 뻑사리)로는 민망해하지 않는 내성을 갖추셨다.

박하식 교장 선생님 – 담당과목은 본래 윤리이나, 경기외고에서는 누구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다만,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눈빛은 선생님의 윤리 수업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시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모두 긴장시키신 바 있다.

백영옥 선생님 – 담당과목은 국어이다. ‘자이스토리’라는 단어는 거의 ‘백영옥 선생님’과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다. 만우절 날 ‘오늘은 자습이 없다’는 거짓방송을 하신 적이 있다. 5기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양희만 목사님 – 담당과목은 종교이다. 유행어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와 ‘고개 들어’ 등 다수이다. 스승의 날 이후, 노래가 곧 개그가 되었다. 교내 유일의 목사님이시다.

유해연 선생님 – 담당과목은 중국어 회화이다. 학생들의 말도 안 되는 중국어를 신기할 정도로 잘 알아들으신다. 관련된 소문에 한국어에 매우 능통하지만 전혀 할 줄 모르는 척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다.

유형숙 선생님 – 담당과목은 영어이다. 다음 시험을 어렵게 내실 것 같은 선생님에 랭크되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음 시험은 쉽게 출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학생들은 이 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기찬 선생님 – 담당과목은 국어이다. 초롱초롱한 눈빛과 화려한 언변으로 학생들을 매료시킨다. 매시간 자는 학생과 발표를 잘한 학생을 아무 곳이나 기록하신다. ‘매우 쳐라’ 등의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킨 주인공.

임준호 선생님 – 담당과목은 영어이다. 폭풍 단어장 검사와 ‘정확히 3분에서 5분까지만 말하기 발표’로 학생들을 긴장시키신다. 1초라도 더 말했다가는 최저점을 받기 때문이다. 유행어로는 ‘자 따라합니다’가 있다.

장혜인 선생님 – 담당과목은 영어이다. 김성은 선생님과 함께 춤을 잘 출 것 같은 선생님에 랭크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 선생

님으로도 손꼽힌다. 현재 ‘미스장텝스교실’을 운영(?) 중이시며, 텁스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다.

정세영 선생님 – 담당과목은 중국어이다. 작년 ‘가장 옷을 잘 입는 선생님’에 랭크된 데 이어 올해에는 ‘가장 몸매관리에 신경쓸 것 같은 선생님’에 랭크되셨다. 지난해 중국인 신부와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신부 와의 대화는 ‘82.17%?’가 중국어이다.

정하승 선생님 – 담당과목은 수학으로, 경기외고의 교무부장 선생님이시다. 매 채플시간마다 시상식의 사회를 담당하는데, 상장이 영어로 쓰이기라도 한 날에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신다. 보기만 해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외모를 소유하신 따뜻한 선생님.

최미영 선생님 – 담당과목은 영어이다. 99%의 영어수업은 학생들을 긴장시키신다. 유행어로는 ‘서술형 평가’와 ‘Jem and Scout’ 등이 있다.

Ms. Darby 선생님 – 담당과목은 영어회화이다. 한국어 이름으로 ‘옥단비’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다. 현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 중이시며 실제로 학기 초보다 한국말을 잘 하시고 계신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학생들 사이에 전파시킨 선생님으로 유명하다.

다소 과장되고 또 장난스럽게 쓰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실 것이 틀림없다. 또한 나열 순서는 그저 가나다 순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다음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